

추밀공파 정현공계 만회공 종중 선조 묘소 합동 참배

'선조의 얼과 사상과 철학을 배우자'



추밀공 단소 앞에서 기념촬영

추밀공파 정현공(正獻公)계 만회공(晚晦公) 종중(회장 권나원)에서는 매월 종원들을 위한 의례교육과 체계교육 등 보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보학교육의 일환으로 현장교육 차원에서 선조들의 묘소를 참배하기로 했다.

권나원 이사장은 "종원 교육의 일부이다.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현장답사이기도 하다. 그냥 찾아가 참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사상과 철학을 교육하여 조상의 빛난 업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또한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상을 체계화하고 많이 연구하여 후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마치 양촌 권근 선생이 유배지에서 동네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운 성리학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입학도설(入學圖說)이라는 그림으로 그려 가르쳤듯이, 선조들의 어떤 정신과 사상을 이 시대 후손들의 정신세계에 어떻게 넣어 줄 수 있을까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만회공 종중에서는 매월 종원들에게 보학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만회공께서 후손들에게 남겨주신 십자훈, 즉 '매사필구시(每事必求是) 무락제이의(無落第二義)'를 낭송하게 한다고 말했다. 즉 매사에 반드시 움음을 구하고, 적당히 차선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후손들은 물마시는 컵에도 새겨 일상에서도 만회공의 유훈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권나원 만회공 종중 이사장과 지난 4월에 정현공 신임 회장을 취임한 권정택 정현공 종중 회장을 비롯하여 권선택 상무이사, 권종만 종손, 권대원, 권선환, 권증원, 권설흘, 권진순 후손 등 종원 30여 명이 참가하였다. 주최측은 성남 만회공 재사에서 7월 6일 아침 9시에 대형 버스 1대가 출발하고 다른 종원들은 서둘러 대전, 광주 등에서 각각 출발하여 10시 30분에 임진강 전진교에서 집합하여 광주 장단면 하포리에 위치한 추밀공(樞密公, 10세) 단소와 충현공(忠憲公, 11세) 단소를 비롯해 정현공(正獻公) 묘소와 밀직공(密直公)과 좌윤공(佐尹公) 묘소 등을 참배하였다. 권행완 편집국장은 차음부터 끝까지 동행 취재했다.

특히 아버지 권영원(35세), 아들 권선두(36세), 딸 권지영(36세), 손녀 권하윤(37세), 외손자 이서준, 이하준 등 삼대가 참여하여 선조의 삶과 사상과 철학을 배우겠다는 뜻으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여기에 머느리 염희섭씨와 이희숙씨도 동참하여 여느 참배와는 다른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하였다. 참으로 가슴 뭉클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과태말라에서 귀국한 권지영씨와 쌍둥이 두 아이들이었다. 어떻게 중남미에 위치한 과태말라에서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답변은 놀라웠다. 권지영씨가 남편을 따라 과태말라에 간지 2년 정도 되었는데 과태말라는 뿌리가 없다란다. 과태말라는 인구가 1800만이고 스페인 식민지를 겪었는데 독립하는 과정에 내전이 많아 나라의 뿌리가 되는 역사와 기록이 다 없어지고 문화재도 없어서 그 흔한 박물관 하나도 없더란다. 그래서 과태말라 지식인들은 박물관이 없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권지영씨는 자신은 생명과학을 전공했고 역사에 밝지 못하지만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절로 느껴졌다고 한다. 뿌리가 없으면 발전도 안 된다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방학을 이용해 귀국했는데 문중에서 선조들의 묘소를 참배한다고 소식을 듣고 기회다 싶어 아이들을 데리고 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이들이 잘 보고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정택 정현공 종중 회장은 추밀공파 파조인 추밀공 신도비 앞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후 참배 동안 내내 집례를 주관했다.

권설흘 상무이사는 추밀공(樞密公, 10세) 단소와 충현공(忠憲公, 11세) 단소에 참배한 후, 다음은 문청공(文淸公, 12세)과 국재공(國齋公, 13세)인데 국재공 대에 이르러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 국재공 본인을 비롯해 다섯 아들, 큰아들 김창부원군(吉昌府院君) 창화공(昌和公) 권준(權準), 둘째 종정(宗頂)이 된 광복군(廣福君), 셋째 영가부원군(永嘉府



현관 권나원 이사장, 대축 권설흘 상무이사



권영창 씨 가족 3대가 참석

하였으나 형님의 만류로 올리지 못하고 태안에 은거하여 성학(聖學)에 전력하였다. 우암 송시열이 쓴 묘갈명에도 만회공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다. "만회공은 어려서부터 자태와 성품이 문란한 말씨를 입 밖으로 내는 일이 없고 하는 일은 일찍이 옳지 않음에 저촉됨이 없었다."고 하며, 늘 말하기를, "무릇 일은 마음속으로 그 옳음을 구해야 하며 제이의(第ニ義)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책을 읽음에는 반드시 마음을 비우고 널리 고찰하여 같지 않은 것이라도 참작하여 자기의 뜻만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옳은 것을 알기로 한다. 그 의리의 돌아가는 바를 정밀히 관찰하는 것으로써 마음가짐과 몸을 닦고 일에 대처하며 외물에 접하는 근본으로 삼으면서 일상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자기 몸을 닦는 일에 오로지 힘쓸 일이다."라고 하였다.

만회공은 책을 읽는 목적이 단지 의리를 관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닦고 구체적인 일에 대처하며 밖의 외물(外物)에 접하는 근본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과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해 도형(道兄: 도를 닦는 형이란 말)이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하는 친구 암자(潛治) 박지계(朴知, 1573~1635)와 평생 동안 논쟁을 벌인다.

또한 만회공은 독서하면서 의심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메모해 두었다가 논어와 맹자 등에 대해 분수 넘치게 의심하여 견준다는 의미로 독서참의(讀書稽疑)를 엮어 냈다. 그는 '잠야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면 제가 독서하면서 얻은 바를 수시로 기록할 때 혹 억지로 의견을 내어 학문을 깊이 파고 들어감을 면치 못한 것이 혹 경문의 뜻과 주자정설(朱子正說) 이외에 별달리 하나의 도리를 발견한 것이 많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는 자가 양해하지 못하면 혹 폐단이 있을까 두렵고 또한 공자의 문인에 죄를 얻음이 심히 클 것"이라고 걱정한다. 당시 오로지 주자학만을 중시하는 조선의 배타적인 학문적인 풍토 때문에 주자와 다른 이론을 제기했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릴까봐 몹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만회공이 잠자 박지계와 인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얼마나 친밀했는지 만회공의 장남 권적은 박지계의 형 박지경의 딸을 처로 맞이했고, 다섯째 아들 단옹(炭翁) 권시(權湜, 1604~1672)는 박지계의 종형 박지경의 딸을 아내로 맞는다. 그러니까 박지계는 단옹의 처삼촌이 된다. 단옹은 처삼촌 박지계의 문하에서 수학한다. 이뿐인가 박지계의 아들 박유근은 만회공 권설흘의 문인이고 박지계의 손녀이자 박유근의 딸은 만회공의 손자며느리가 된다. 두 집 안이 혼맥으로 학맥으로 겹겹이 얹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회공 후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단옹의 대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대역 연산 노성 등 호서의 명문사족으로 크게 발돋움한다. 단옹의 치남 권유는 노론의 영수 우암 송시열의 딸과 결혼하여 우암의 딸을 머느리로 삼으니 단옹과 우암은 사돈이 된다. 단옹의 장형 권적은 송시열의 막내 송시걸을 사위로 맞는다. 또한 단옹은 윤선거의 아들이자 소론의 거두 명재 윤증을 사위로 삼았으며, 단옹의 둘째 딸은 남인 백호 윤희의 아들 윤의제와 한 가정을 이룬다.

노론의 영수 우암 송시열과 소론의 거두 명재 윤증을 비롯해 남인의 백호 윤희까지 모두 단옹 권시와 혼맥관계를 맺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회공 종중 권나원 이사장은 춘추향제 때만 선조의 묘소를 찾을 것이 아니라 평소에 훌륭한 선조들의 얼과 사상과 철학을 체계적으로 배우자는 종원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매월 문중 재사에서 보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위 선조 배우기 학습이다. 앞으로 만회공 종중이 모범이 되어 선조 배우기 학습운동이 더 많은 문중과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권행완 편집국장

최초 족보 성화보로 빛나는 안동권문

최초의 전자족보에 이어 'AI 족보 시스템' 논의



권영창 회장, 권행완 편집국장, 권오상 총장, 권오철 기자(오른쪽부터). 사진 권오철 기자

2024년 7월 19일, 안동권씨대종회(회장 권영창) 사무실에서는 권영창 대종회장, 권오상 사무총장 권오상, 권행완 편집국장, 권기모 종무국장 등이 권오철(權五澈, 부정공과 35세, 한류문화원 대표, 종보사 기자) 기자의 'AI 족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권영창 회장은 권문사사(權門司事)의 유품이 성화보(成化譜)인데, 그 내용은 지금 봄 대단하다. <족보>는 그 진위에 관계 없이 한국사회 발전에 있어 큰 자산임은 분명하다. 2005년 첫 인터넷 전자족보(乙酉電子譜) 발간도 권문이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AI족보' 얘기를 하니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오철 연구자는 '자세한 것은 말하기도 어렵고, 또 연구 중이고, 이 순간에도 시스템은 발전하고 있다. 30여년 전 누가 '우주에 전파를 쏘서 차량을 운행(네비게이션)한다.'고 했다면 믿었겠는가? 실제 기술적 난제, 설명해도 이해가 어려운 점, 그러나 일단 무엇보다 권문이 먼저 이를 시도한다는 것을 알리자는데 목적이 있다.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말하였다.

[개요]

1. 현재 족보는 임의로 보완하다 보니 실제와 다른 점이 있고, 이는 타 족보와 크로스 체킹(AI)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타족보는 역시 권문에서 출가한 경우 그 해당 성씨족보와 비교 대조하여야만 그 진위가 밝혀질 수가 있다.

3. 안동권씨족보도 가장 정밀하고 모범적이라 하지만 선대 기록에 대한 검토와 보완 또한



1476년(성종 7) 병신년, 최초의 족보 안동권씨성화보, 이는 외손 서거장을 비롯한 권제(權湜), 권령(權寧), 박원창(朴元昌), 최호원(崔灝元) 등 당대 석학들이 동원되어 만들고, 특히 남녀평등 기재, 팔고조도(八高祖圖)에 근접한 외손, 서손의 기재, 분재기에도 남녀기미흔 관계없이 동등한 배분을 한 조선초 양성평등성을 반영하여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AI족보의 기본정신이다.

이에 권오철 연구자는 "나중에 다시 연구 내용을 수시로 알려드리겠다. 재원 조달, 인력 운용, 기법 운영 등에 대해 하나님나 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 시대에 <종이 없는 족보>는 재원 조달이 되지 않지만, <종이 족보>는 그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적용하여, 소량 특정 발간 시스템으로 기념품 스타일로 발간하여 수익을 낼 수 있고, [앱(App)]이 300만 범권문(汎權門) 관련인의 커뮤니티가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재정 유지가 될 수 있고 최초의 것은 범권문 클라우드 펑딩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능성의 하나를 내비쳤다.

글 권오철 기자

더위야 물렷거라!

-2024 경산시 안동권문 종친회 복달음 행사 가져-



특히 올해는 하양 종친회 회장 일행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권중석 경산시 의회 운영위원회는 "한 달여 남은 여름을 오늘 복달음을 통해 기운을 얻어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권오홍 경산시 안동권씨 종친회장은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긴 장마가 끝나고 복목을 맞이하여 지구의 열대화로 폭염이 시작되고 있다. 족친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평안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기자뉴스 권성옥 취재부장